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새 시대를 여는 한민족네트워크

조 규 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전 주 브라질 대사

네트워크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개인·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민족까지도 네트워크를 통하여 소통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네트워크는 또 다른 네트워크를 낳고, 수많은 네트워크가 모여 하나의 허브를 만들고, 서로 다른 허브들이 연결되어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제 사람들이 국경과 국적, 시간과 공간, 언어와 문화, 심지어 이념과 종교의 벽을 넘어 작은 것 하나라도 공감하고 공유하는 개방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1=2로만 인식되던 것이 100도 되고 무한대(∞)도 되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사회적 연결고리'(social connectedness)가 활성화된 결과이다.

그런 시각에서 한민족의 과거와 현재를 보자. 150여 년 전, 당시 조선사회에서 전개되었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내 나라를 등져야만 했던 해외 이주자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어서 하와이 멕시코 등지로 제법 큰 규모의 집단이주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들은 국권상실 과 함께 졸지에 외지에서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만다. 일제 강점기에도 강제동원, 강제이주, 징병 등등의 이유로 원하지 않는 해외 이주가 계속되었다.

그토록 원하던 해방이 되었지만 이들은 남북이 갈라지고 국경이 가로막혀 돌아오래야 돌아올 수 없었다. 정부수립 이후에도 사람들의 해외이주는 계속 되었다. 해방 전 이주는 자기의사에 반한 이주였거나 국내사정이 워낙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강제이주라면 해방 이후의 이주는 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해외이주라는 차이가 있다 하겠다.

그렇게 고향을 떠난 사람들과 그 후예들이 오늘날 전 세계 170여 개국에 720만에 이른다. 그러나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하였던 이념의 대립, 교통과 통신수단의 제한으로 인한 공간과 거리의 장벽 등등 이유로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재외(在外)동포란 그야말로 바다 건너 국경 너머 살고 있는 멀어진 친척쯤으로 여겨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태평양바다 건너에서, 중앙아시아와 동북만주에서, 일본열도에서, 그리고 5대양 6대주 이역의 땅에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이 살고 있을 걸로 생각했던 나라를 떠난 이들과 그 후손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뿌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쿠바의 한인 후손 3~4대들이 인천의 이민 박물관을 방문하여 100여 년 전 제물포를 떠났던 선조들의 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짓는 장면은 그들이 이제 모습은 달라졌을지언정 우리와 뿌리를 같이하는 한민족의 후손임을 말해준다.

또 특기할만한 것은 한인들 대부분 어느 곳이고 할 것 없이 각자의 거주국에서 성실과 강인함으로 수난과 차별을 극복하고 주류사회 속으로 꾸준히 파고들어 오늘날의 코리안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그들은 모국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글로벌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변화·발전하고 이제 국가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들어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 우수동포인재유치, 한글교육 및 한국문화·역사교육 확대, 분야별 전문네트워크 확충 등 재외동포를 싸안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해외동포를 품어야한다는 국민공감대도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역이민동포, 국내체류·취업동포, 영주귀국동포, 국적취득동포, 국제결혼가정자녀 등 다양한 유형의 디아스포라를 글로벌한민족공동체라는 큰 틀 안으로 통합하려는 뜻있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민족네트워크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우리와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의미와 잠재력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 정부는 국익과 국민행복의 관점에서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뿌리의식을 함양하는 데 힘을 쏟아야한다. 이미 구축해놓은 재외동포사회 내 각종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모국과의 연결밀도를 더욱 정교하게 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더 큰 대한민국, 희망의 새 시대'의 든든한 후원군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전략적인 사고와 시각이 요구된다.

의료칼럼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 그 선택은?

김 병 희
남구미래아동병원 원장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가끔 본인이 처방받은 약에 대해 질문하는 환자들을 보게 된다. 특히 어린 환아를 둔 엄마들이나 젊은 환자일수록 본인이 처방받은 약에 대해 궁금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럴 때면 환자들이 예전보다 적극적이구나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당의에게 직접 문의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신뢰의 벽'이 느껴져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이나 반복되는 요로감염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환아의 보호자가 아이가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예전 처방시에는 오리지널 약이라 약값이 비싼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약값이 적게 나온다며, 그런데도 그 효과는 같은가에 대해 물어온 적이 있었다. 환아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의문을 가진 것도 당연하다. 처방전만 보면 어떤 약제를 처방받았는지 알기도 쉽지 않기에 환자가 직접 약에 대해 알아본 후에 터놓고 질문을 해준 점이 바람직하기도 해 오리지널 약도 특허가 만료되면 약값이 기존보다 저렴해지기 때문에 제네릭 약의 가격과 비슷해진다고 자세히 설명해드렸다.

오리지널 의약품(브랜드약, 신약)이란 제약사가 처음 개발하는 원개발 의약품을 말하며, 여기에는 최소 10~15년의 기간과 평균 1조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런 엄청난 시간과 고비용을 들여 약을 개발하더라도 임상시험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약으로 출시되지 못하기도 하고, 이후 엄격한 과정을 뚫고 신약으로 탄생한 오리지널 의약품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사용돼 오면서 사용 경험을 축적하기 때문에 품질과 효과, 안전성과 임상적 가치가 입증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오리지널 의약품은 품질이 뛰어난 만큼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은 뛰어난 품질·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은 저렴해진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후에 성분, 함량, 제형 등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카피약)으로도 만들어진다. 제네릭 의약품은 정부가 시행하는 생동성 시험을 거쳐 승인받은 의약품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품질과 효능을 지닌다. 특히 제네릭 중에서도 오리지널 의약품에 적용되는 글로벌 품질 기준을 적용해 만든 고품질의 퀄리티 제네릭의 경우, 효능과 효과를 신뢰할 수 있음은 물론 가격도 합리적이다. 이처럼 다양한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가격대비 좋은 치료약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많은 제네릭이 시장에 나와서 유통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약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약 자체의 효능과 품질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름을 많이 들어본 오리지널 약이 아니어서 그 약효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레짐작해서는 안 된다.

의사는 오리지널 약과 제너릭 약에 대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고, 환자의 건강을 올바르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한 마음으로 물어봐 주는 것이 서로에게 신뢰를 쌓아가고 본인의 질환 치료에도 원원하는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기고

도시농부 '로커보어'

서 정 수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도 자신의 지역에서 재배된 채소와 고기를 먹었다. 그러나 각종 교통의 발달은 지구촌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재배된 각종 음식 재료가 싼 가격으로 지구촌 곳곳으로 공급되었다.

당장에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식탁은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지구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로컬 푸드(local food)가 있다.

식품의 복잡한 생산 공정과 수많은 선적과 하역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자는 취지, 그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친환경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식품을 쉽게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거대산업에서 탈피해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하겠다며 시작된 유기농이 어느새 기업화로 탈바꿈돼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로커보어(locavore)'가 인기다.

우리에게 생소한 로커보어는 local(지역)과 vore(라틴어의 먹다)를 합성한 단어로 "지역 먹거리 주의자"를 일컫는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재배·사육된 먹거리를 즐기는 이들을 말한다.

로커보어는 우리의 '신토불이'(身土不二)와 일본의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地山地消)와 비슷하다. '로컬 푸드'(local food)를 먹는 것 외에 이 같은 소비 운동과 트렌드도 로커보어를 뜻한다.

로커보어는 단순히 신선한 식품을 먹자는 취지를 넘어 환경운동과도 직결된다. 즉, 식품의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수송용 연료 사용이 줄어들어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 이를테면 농산물이 생산지에서 각 가정의 식탁까지 옮겨지는 거리를 말하는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과 환경의 함수를 보여주는 환경지표인 셈이다.

운반거리를 줄여 신선한 음식을 먹고자하는 욕구가 늘어나는데다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먹을거리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환경오염에서 오는 불안감을 먹거리에서 보상받고 치유하려는 경향이다.

건강을 위해 유기농 식품을 사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로커보어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생산 농산물을 소비하자는 취지를 넘어 아예 도심에서 먹을거리를 직접 길러 먹자는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가서 로컬 푸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도시에서도 충분히 로컬 푸드는 가능하다. 모스크바는 전체 가구의 3분의 2가 먹을거리를 직접 재배하고, 쿠바의 아바나에서는 도시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80퍼센트 이상을 도시 텃밭에서 조달한다고 한다.

한국의 현실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뉴욕 도심 속 양봉이 증가한다는 외신 기사가 있다. "도심에 벌통 하나가 생기면 5만 개의 꽃가루를 불러들인다."며 점차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꿀벌을 살려 보겠다는 로커보어들의 노력이 있다.

도심 아파트에서 야채를 직접 길러 먹는 것도 로커보어다. 도심 주변의 주말농장을 경작하고, 옥상이나 베란다에 식물매트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길러 먹는 도시농부가 되자.

긴 장마와 폭염의 이상기후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엽채류의 가격을 폭등케 하고, 도심지역의 누적상승온도가 농촌지역보다 0.42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옥상에 녹지대를 만드는 것도, 베란다 텃밭도, 건물의 열기와 이산화 탄소 농도를 낮혀 도시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공기정화는 물론 환경학습의 장이 되며 녹색커튼 효과로 집안의 온도를 낮춰 준다.

도심 주변 주말농장 갖기와 옥상이나 베란다에 식물매트를 설치하여 농산물을 직접 조달하는 것이 로컬푸드의 첨병, 바로 도시농부 로커보어다.

웰빙시대 동물용 생약 개발 정부 적극 지원 필요

사람이 먹는 약도 항생제 남용은 물론 일반 의약품마저 약물의 오남용을 걱정하는 시대이다. 그 때문에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물며 가축은 오죽할까.

이미 가축에게도 항생제 남용의 문제가 심각해서 동물용 약물의 남용을 줄이자는 운동이 일고 있다. 그래서 동물용 항생제를 많이 쓸 경우 육류 수출도 어려운 게 오늘날의 가축시장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인체에 해가 없게 하자고 만들어진 게 동물용 생약이다. 이는 웰빙과 녹색성장이라는 요즘의 추세에 딱 맞는 축산방법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가축의 생약시장에 뛰어들고 우수한 생약을 개발한다면 그 시장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4조 원 가량의 동물약품 시장 중 10% 정도를 생약이 차지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생약이 그다지 알려져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생약이 아직까지 효능이나 효과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약품의 원료나 품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정부에서 내줘야 한다고 본다. 정부에서 외치는 게 녹색성장이므로 약품회사가 생약을 개발하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제도와 장비를 갖춰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생약이 개발되면 그만한 홍보도 해주고 수출방안도 마련해 줘야 한다. 그렇게 우리나라 가축의 질병을 한가지씩이라도 생약으로 치료를 해나간다면 먼 미래에 우리 후손들은 화학적 항생제로 치료하지 않은 인체 무해 생약으로 치료한 가축의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가축치료를 위한 생약제품 생산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줄 걸로 안다.

▲김성희·광주시 남구 도금동

社 說

또 대입 변경, 백년대계 뿌리 흔들려서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입제도 근간을 크게 흔드는 새로운 시안을 발표했다. 주로 현재 중학 3학년부터 해당되는 이 개편안은 그동안의 입시 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어서 학교 현장에 미치는 충격이 일파만파다.

우선 큰 혼선을 빚었던 '선택형 수능(A/B형)'을 도입한 지 1년만인 내년부터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조변석개(朝變夕改)가 아닐 수 없다. 또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 아예 문과·이과를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는 등 가히 혁명적인 조치가 예고됐다.

교과부의 발표를 전해들은 일선 학교는 그야말로 '혼돈' 상태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시됐던 시책들이 하루아침에 백지상태가 된 것에 대해 극심한 혼란과 함께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서 대입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학생들을 실험대상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대입전형에서는 학생부와 논술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되면서 지방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논술이 강화되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논술교육을 받기 어려운 광주·전남 지방 학생들의 이른바 명문대학 진학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논술 비중이 커질 경우 가뜩이나 여건이 어려운 지방학생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지역 학부모의 걱정이 크다. 지방학생들이 수백만 원을 들여 서울에서 논술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광복 이후 60여 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큰 틀이 바뀌었다. 3~4년에 한 번은 변경된 셈이다. 교과부는 시대 변화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입시안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다. 대입제도를 둘러싼 더 이상의 혼란과 시행착오는 안 된다.

친환경농업 위협 슈퍼벼멸구 대책 급하다

농약에도 죽지 않는 '슈퍼 벼멸구'가 기승을 부려 전남 친환경농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않아도 친환경농법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무농약단지가 많은 전남들녘은 벼멸구 피해에 취약한데 올 가을 수확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농촌진흥청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날아온 벼멸구 일부는 국내 농약에 저항성이 있어 방제를 하더라도 박멸이 어렵다고 한다. 국내와 중국이 똑같은 성분의 약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서 내성이 생긴 벼멸구가 생존·번식을 한 뒤 국내로 유입돼 벌어진 일이다.

현재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경남(31%)이지만 전남도 당장 발등의 불이다. 벌써 전체 논의 25%가 벼멸구 피해를 입고 있다. 이중 5%는 당장 방제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또 확산속도도 매우 빠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 약제들이 이 '슈퍼 벼멸구'에는 전혀 듣지않아 피해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방제에 취약한 전남의 무농약단지가 전국 면적의 65%에 달해 '슈퍼벼멸구'가 계속 확산된다면 전남 친환경농업은 물론 전국 친환경 농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1년농사의 성패가 이번 방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예년과 같은 방제대책으로는 안 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정당국과 전남도는 당장 피해를 최소화할 종합 방제대책을 서둘러야한다. 최근 일련의 실험에서 방제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페노뷰카브, 에토펜프록스, 디노테퓨란 등 약제의 공급선을 늘리고 농가 방제지도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무농약·친환경농가들도 방제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야하는 것은 필수다. 전남 친환경농산물이 잘못된 방제로 인해 불신을 사게 되다면 만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불취무귀(不醉無歸)

조선의 왕들 중 정조는 술을 굉장히 좋아했다. 특히 서민들이 즐겨마시는 탁주를 좋아했으며 주안상에는 기름진 고기 안주 보다는 민초들이 먹는 소박한 푸성귀 안주를 즐겼다. 근엄한 왕이 아니라 백성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겠다는 인간 정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정조는 어느날 과거시험에 합격한 성균관 유생들을 창덕궁 희정당으로 초대한 후 "옛 사람들은 술로 취하게 한 뒤에 그 사람의 덕을 살펴본다고 하였다. 오늘 취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돌려보내지 않겠으니 각자 양껏 마시도록 하라" (정조실록)고 했다. '불취무귀(不醉無歸)' 정조의 건배사로 유명한 글귀다. 정조의 이 말은 "백성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술에 마음껏 취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지를 표현 한 것이다.

이와함께 '불취무귀'라는 글귀에는 심각한 붕당 간 대립을 완화하려는 정조의 고육지책이 숨어있기도 하다. 정조는 당시 노론과 서론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당색이 다르면 조문(弔問)도 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서로를 원수보듯 해 주요 국책사업이 번번이 무산되는 지경이었다.

정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했고 술자리는 그러한 의미로 마련된 것이었다. 정조는 여러 붕당의 젊은 유생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 왕이 친히 내린 술을 마시고 서로 어우러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조의 노력에도 붕당간 협력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박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여러 기관에서 그간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용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후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소통이 부족하고 정치가 없다'는 쓴소리도 있다. 세법개정안 변경과 공직자 인사등이 대표적 불통 사례로 꼽히고, 국회를 뛰쳐나간 야당을 끌어안지 못하는 제왕적 대통령상은 안타깝다.

박 대통령이 정조처럼 야당을 끌어안고 소통하는 큰 정치를 보여줘야 할 때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